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은기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발전협회, 제11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새로운 국제질서下 항공우주력의 역할 논의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회장 김은기)는 6월 7일(수) 10시부터 공군호텔에서 “새로운 국제질서下 항공우주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이번 학술회의는 안보 및 항공우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항공우주력이 해야 할 역할과 진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많은 군(軍)·산(産)·학(學)·연(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부는 공군발전협회장의 개회사,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의 축사, 공군참모총장의 기조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서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는 우주력 발전을 위한 공군의 노력을 평가하고 공군이 가진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고려할 때 공군이 항공우주력 강화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사령관 직책을 맡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과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 양상으로 볼 때 분쟁 발생 후 대응보다 분쟁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거부적 억제와 징벌적 억제를 막론하고 항공우주력이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위협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서는 상황인식과 감시·정찰·투사 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한미 양국군 사이에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지상군은 한국군이, 해·공군은 미군이 맡는다’는 역할분담 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숙명여자대학교 김광진 교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군 협력의 시너지 증진을 위해 군이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북핵 위협과 관련한 위싱턴 선언과 우주의 군사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항공우주력과 미국 핵전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 작전계획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효율적 우주작전을 위한 우주 감시·경보체계 확립은 물론 한·미 및 공중·우주 무기의 상호운용성과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흥철 공군준장은 ‘미래전 대비 항공우주력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주력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설명한 후 미래전은 전장과 임무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네트워크 중심의 다차원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 전장관리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실천과제로 내부적으로는 민·관·군 통합 능력 증진, 외부적으로는 동맹 및 지원국의 능력을 활용한 국방우주력과 공군 항공우주력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병광 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김태훈 SBS 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가 현대전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자산들이 배치·활동하는 공간으로서

국가안보의 결정적 요소이며 새로운 전장 영역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없이 정권주도형으로 추진되었던 국방개혁의 비효율성 문제, 우주력과 관련된 소모적 경쟁과 중복성 문제, 기존 전력과의 관계 설정 필요성, 한반도가 세계 안보 불안의 각축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력이 수행해야 할 역할, 맹목적인 선진국 추격행이 아닌 한국군 특유의 전략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최근 그 중요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항공우주력 관련 국민적 기대와 우려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공군, 6·25전쟁 출격조종사 초청 행사



정성화(앞줄 가운데) 공군참모.

공군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0전투비행단에서 ‘6·25전쟁 출격조종사 초청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두만(96) 예비역 대장과 이배선(91)·신관식(91)·신준기(93) 예비역 대령, 이학선(92) 예비역 중령 등 5명의 출격조종사가 참석했다.

김 장군은 6·25 당시 한국 공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과시한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1차 출격에 나섰다.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 전투 출격 기록을 달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배선·신관식·신준기 예비역 대령과 이학선 예비역 중령 모두 6·25 당시 공군의 3대 전승 작전 중 하나인 ‘351고지 전투 항공지원작전’에 출격해 승리에 일조했다. 6·25 당시 공군 출격조종사는 총 129명이며, 현재 10명이 생존해 있다.

행사에서 출격조종사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경험을 회상하며 후배들에게 들려줬다. 후배 공군 장병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6·25에서 위기에 빠진 조국 하늘을 수호했던 선배 조종사들의 경험과 조언을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국립서울현충원 합동 참배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본회는 6월 5일 10시 30분 공군예비역단체인 공사총동창회, 학사장교회 및 전공상유공자 임원 등 약 8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충훈탑에서 합동참배를 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조국을 위해 순국하

신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분향 및 묵념 등 참배행사를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합동참배 전·후에는 신분별 또는 개인별로 연고묘역을 찾아 옛 전우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고 이근석 장군 추모식



공군전우회 및 공군군수사령부는 7월 4일 본회 중앙회 임원, 대구지부 회원 등 56명과 대구기지 지휘관 참모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고 이근석 장군 약력소개,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가, 종교의식 순으로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고 이근석 장군은 공군창설 7인간부중 한분으로 공군창설에 기여하였으며, 6·25 전쟁 때는 F-51D 무스탕을 타고 최초의 전

투기 출격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이 장군은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전차 대열에 포격을 가하던 중 피탄되자 적 전차를 향해 돌진하여 34세의 나이로 장렬히 산화했다.

본회 김은기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공군은 장군님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어떤 상황하에서도 조국을 지켜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선진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군전우회 회장단, 공군우주센터 방문

공군전우회 회장단 및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 등 25명은 4월 26일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공군우주센터 임무, 정책 및 전력발전계획 등을 소개받고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은기 회장은 최성환 우주센터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어 방문을 마친 후 계룡대 무궁화 회관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방문은 최근 세계 열강들의 우주경



쟁 선점을 위한 활동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공군의 우주관련 현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군전우회 회장단,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참관



공군전우회 회장단 9명은 6월 15일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참관했다.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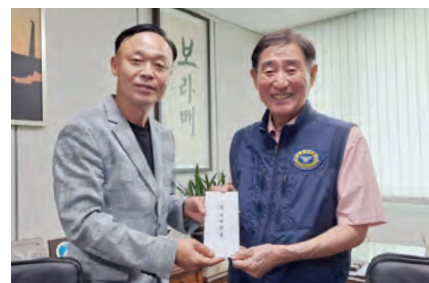
시된 이날 훈련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귀빈, 국회의원, 군 주요직위자, 국민 참관단 등 약 2000여명이 함께했다.

(세부내용 본지 안보소식란 참조)

공군항공안전단에 격려금 전달

김은기 회장은 6월 5일 부대창설 28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본회가 주둔하고 있는 공군항공안전단장에게 부대장병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하고 부대창설기념일을 축하해주었다.

김 회장은 “공군전우회, 공군발전협회, 공사총동창회, 공군학사장교회 및 공군전공상유공자회가 부대내에 상주하고 있는데 공군항공안전단에서 예비역단체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음에 전 단체를 대표하여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공군발전협회에 발전기금 전달

KB국민은행 임원진(국군마케팅부 부장 김빛남) 4명은 5월 24일 공군발전협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김 부장은 “공군발전협회 주요 목적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공군과 공군발전협회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 김은기 회장은 “KB국민은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후원해주고 있음에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공군발전협회 후원단체



로서 2018년도에 이어 기부금을 지속 후원해 오고 있다.//

150기 학사사관 및 245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김은기 회장은 5월 31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150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윤예인 소위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장교 435명은 약 1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과 전투 지휘능력을 배양했으며, 행사는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훈시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5월 1일 열린 245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 행사에는 부대 장병과 신입 부사관 가족·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15명이 임관했다. 이날 공군전우회 보라매상은 차



주성 부사관전우회장이 참석하여 신입 이경환 하사에게 보라매상장과 메달을 목에 걸어주며 격려했다.//

김신 장군 7주기 추모식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이자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제6대 공군참모총장 고(故) 김신 장군의 7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이 5월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김신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역대 공군참모총장, 서울지방보훈청장, 기념사업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1922년 중국 상해에서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신 장군은 일제강점기 항공독립운동을 펼쳤다. 광복 후 공군 창설에 이바지한 고인은 공군 조종사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고인은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후 교통부 장관, 제9대 국회의원, 독립기념관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다. 김두만 김신장군기념사업회회장은 추모사에서 “김신 장군은 전장에서 살신성인과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부하들을 이끌어 빛나는 전공을 세우셨다”며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김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장호근 회원, 미 공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출간

장호근 회원[예 소장, 공사 17기, 전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회(현, 항공우주력연구원) 초대 위원장]이 현역 때 조종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미 공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를 출간했다.

그동안에 미 공군이 주도한 한국전쟁의 항공작전에 대해 많은 번역물이 출판되었으나, 군 내부 참고용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지금까지 출판된 두꺼운 번역물과는 달리 일반 독자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요점만을 간추려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최초 제트기(F-86 vs MiG-15) 간의 공중전과 전투기 에이스들의 무용담, B-29 폭격기의 활약상과 함께 미 공군 전투공수사령부의 숨은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발달로 전술 전기가 급변하여도 전장의 극한 상황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부터 나오는 투혼(Fighting Spirit)은 변함없이 승리의 기본 핵심 요소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자국 전쟁사를 필수로 가르친다. 이 책이 공군의 군 교육 기관에서도 전쟁사 교육의 필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인 올해 발간되어 그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이한호(전) 공군참모총장이 추천의 글을 썼다.//



공군항공과고총동창회장단, 제20전투비행단 위문방문

공군항공과학교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진홍) 회장단 3명은 4월 17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으며, 20전비 단장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장병이 일치 단결해 빈틈없는 영공 방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군ROTC장교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석찬)는 5월 26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산 산행과 당구대회로 친목을 도모하고, 기념행사와 만찬으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북한산 일대 칠곡~백악정~청와대 전당대~춘추문~경북공업 코스로 산행을 했으며, 청와대 전경을 조망했다. 또한 종로 인근의 당구장에서 당구경기로 친목을 다졌으며, 인근식당에서 창립 1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만찬으로 회원간 우의를 다졌다.//



서용길 회원, ‘대한민국을 빛낸 100인 대상’ 수상

서용길 회원(예 중령, 학사 55기, 공군사랑회 회장)이 대한민국을 빛낸 100인 대상조직위원회(명예총재 황교안)로부터 4월 18일 국가사회 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조직위원회는 “서 회원이 남다른 열정으로 국가와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창의력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고, 특히 혁신부문에 남달리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무안보연구소, 안보학술세미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설기관인 성무안보연구소는 7월 6일 공군호텔에서 ‘제3회 안보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걸프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두 전쟁의 비교·분석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적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공군력 발전 전략을 세우자는 취지다. 세미나에는 국방안보 전문가와 공군사관학교(공사) 생도들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구백 의원,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후 김윤택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기조연설, 주제 발제·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부서관전우회 골프대회

부서관전우회(회장 차주성)는 5월 3일 청주기지에서 제5회 부서관전우회장배 골프대회를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이용구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차 회장은 “부서관전우회 각종 활동을 활성화 하면서 회원 모두가 회원추가확충에도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공군전공상유공자회 안보현장 견학

공군전공상유공자회(회장 박찬태)는 5월 11일 회원 및 가족 약 20여명이 조선시대 전적지인 강화도 초지진, 광성보, 동교도 등 안보현장을 견학했다.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등 외적선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기위한 선조들의 지혜와 강인함을 알수 있는 등 참가자 모두는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수송골프회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

공군전우회골프동호회 산하 공군예비역수송골프회(회장 송경중)는 5월 18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전쟁고아의 아버지' 딘 헤스 대령 8주기 추모식

6·25전쟁 항공전의 영웅이자 '전쟁고아의 아버지' 고(故) 딘 헤스(Dean E. Hess) 미 공군 대령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5월11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거행됐다.

행사에는 역대 공군참모총장, 미 7공군부사령관 등 미 측 인사, 유가족 등이 추모에 동참했다.

특히 헤스 대령의 세 아들과 6·25전쟁 당시 헤스 대령의 노력으로 제주도로 후송된 전쟁고아 5명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헤스 대령은 6·25 당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교육하고, 전쟁 초기 1년간 직접 250여 회를 출격하면서 적 지상군 격퇴에 큰 공을 세워 '한국 공군의 대부'로 불린다. 아울러 1950년 12월 미 공군 준중



목사 고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과 함께 미 C-54 수송기 15대, C-47 수송기 1대를 동원해 1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후송시켜 구출하고 현지에 보육원을 설립했다.

그는 전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20여 년간 전쟁고아 후원금 모금 활동에도 앞장섰다.//

공군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이상학(중장·왼쪽 둘째) 공군참모차장과 참석자들이 공군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가 5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군·산·학·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콘퍼런스는 '항공우주무기체계발전 세미나'와 '민군협력소요발전 세미나'로 나뉘

어 열렸다.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항공우주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민군협력소요발전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방산업체들의 항공·지상 장비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은 5세대 주야간 표적 식별장비, 드론테러 방어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자랑했다.//

공군, 항우연·천문연과 열린우주포럼

공군은 7월4일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 함께 '국가 우주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민·군 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3 열린우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국내외 민·관·군·산·학·연 우주분야 전문가, 미 우주군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포럼은 △이상률 항우연 원장, 박영득 천문연 원장 환영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신원식·김병주·안규백·배전교 의원,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축사 △벤스 솔츠먼 미 우주군 참모총장의 영상축사 △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의 기조연설 △주제발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중전투사, 비행단 전술토의

공군공중전투사령부(공중전투사)는 5월9일 대회의실에서 최상의 결전태세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비행단 전술토의를 개최했다.

공승배(소장)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전술토의에는 공중전투사 지휘관·참모, 발표자, 조종사들이 현장 참석했다.

예하 전(全) 전투비행부대장과 지휘관·참모, 조종사들은 화상회의(VTC)로 참여했다.

전술토의는 4·5세대 통합임무 수행 간 FA-50 운용 및 훈련절차 수립, F-15K를 활용한 순항미사일 식별·요격 및 훈련방

안, 적 서북도서 인근 북방한계선(NLL) 기습침범 대응 및 훈련방안 등 3가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

2023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21기·31기·41기·51기·61기)



올해 공군사관학교(공사) 임관 50주년을 맞은 선배 예비역부터, 10주년을 맞이하는 현역 장교까지 동문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우애를 다지는 행사가 마련됐다.

공사는 6월10일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2023년 공사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임관 10·20·30·40·50주년인 동문들이 공사와 공군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후배 생도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21·31·41·51·61기 동문과 친지, 순직 조종사 부인회 등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동문들은 공중근무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원한 빛' 추모비를 찾아 헌화·묵념했다. 이어 임관 기념식을 치른 뒤 공군박물관 등 달라진 모교를 둘러봤다. 또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의 개교 기념 축하 메시지 낭독, 근무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도 병행돼 의미를 더했다.//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이글'(Soaring Eagle)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우리 공군의 핵심전력이 대거 투입된 공중종합훈련이 5월12일부터 19일까지 펼쳐졌다.

공군은 5월 12일 청주기지에서 '2023년 전반기 소링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시작으로. 훈련은 확고한 영공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조종사들의 전투 기량을 연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는 F-35A·F-15K·(K)F-16·FA-50·F-4E·F-5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2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소링이글 훈련은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전역급 공중종합훈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연 1~2회 실시하고 있다.//